



50년 세월 [3.15의
그날

방학기 / 만화가



KBS의 <3.15의거 특집>다큐에 리포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로 당시에 희생된 21기 동문 김용실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었다.

1960년 3월 15일 저녁, 북마산 파출소 앞에서 자유당 경찰의 총에 맞은 김용실의 시체는 곧바로 도립병원으로 실려 왔는데, 시체에 마산경찰서 형사들이 좌익뼈라를 넣은 것이었다. '이승만을 죽여라' '김일성 수령 만세' 등을 적은 불온 뼈라를 시체 주머니에 숨겨 넣고 검시 그러나 도립병원 의사들은 총을 들이대는 경찰의 강박 앞에서도 감연히 이런 용공조작을 거부했고, 경찰의 기도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고 한다.

당시 관제언론 서울신문의 마산지국장인 AP통신 등 외국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시위 군중들 사이에서 인민공화국 만세소리를 분명 들었으며 무학산 꼭대기에서는 전국에 좌익의 봉기를 독려하는 봉화불이 오르는 걸 봤노라고…….

공포는 사람을 잔인하게 한다. 자유당 정권은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고 80고령의 이승만이 임기 중에 죽기라도 하면 하루아침에 민주당 천지로 세상이 바뀔 거란 공포감에 사로잡혀, 자유당의 용공조작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런 장면도 있다.

4월 11일 김주열 시체가 떠오른 뒤 시민들의 시위가 격화되어 가던 4월 20일 경, 일단의 부산원정시위대가 트럭을 나눠 타고 마산으로 넘어온 적이 있었다. 마산



시위가 학생들이 주축이 된 순수한 시민 항쟁이라면, 부산시위대에는 강패 양아치 등 사회 하층의 불만 세력이 다수 섞여 있었다. 이들의 과격행동을 우려한 마산 사람들은 경찰이 도망간 뒤 지키는 자가 없던 경찰무기고를 조를 짜서 돌려가며 경비를 썼고, 이런 사실은 '3.15의거 기념사진집'에 사진 증거로도 남아 있다.

그만해도 50년이 지났다. 반세기 전의 그 잔인했던 3월, 밤이면 전기 회사의 송전 중단으로 도시는 칠흑처럼

어두웠다. 간헐적인 총소리와 음산한 사이렌 소리가 간간이 들리는 중에 사람들은 이 골목, 저 거리로 삼삼오오 유령처럼 몰려다니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무찌르자 오랑캐' 를 목이 메어 부르곤 했다. 그들이 부른 것은 노래가 아니라 자유에의 절규였으며, 분노와 공포로 얼룩진 그 밤은 세상이 끝나는 듯한 종말의 밤과 같았다.

시청 앞과 경찰서 앞에서, 창동거리 불종거리에서, 부당한 시대를 온몸으로 막아서다가 선혈로 스러져간 아름다운 영혼들! 그 피의 3월과 역사의 마산이 왜 4.19에 희석되고 5.18에 묻혀버려야 하는지…….



마고 교정의 김용실 기념비와 국립묘지 그의 무덤 위에는 3월초의 마산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떠나 살다가 오랜만에 고향을 둘러본 망 70객의 가슴에도 흐린 하늘만치나 무거운 회한이 내려앉았다. *

본부동창회 계좌번호

구해룡(총무)

농협 821155-56-153953



벌써 늙가의 버들강아지가 하얀 솜털로 부풀어 오르고 왕 버들의 겨울눈이 제법 생가 돌고 있다. 양지바른 산자락의 소나무 잎도 어두운색에서 밝은 색으로 변해가고 담벼락 양지쪽 처녀꽃 꽃망울이 제법 탐스럽기도 하다. 만개한 꽃잎을 활짝 펼치고 사랑의 전령사들이 목요산행에 기분 좋은 상쾌한 내 마음을 誘惑하고 있다.

3월은 위대한 달이다. 1년 열두 달 중에서 가장 뜻이 깊은 달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3.15의거 50주년인 마산국립 3.15민주묘지 진입로에 3.15의거정신을 담은 시 10편을 새긴 기념 詩碑除幕式도 있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고 했던가, 독재정권에 맞서 마산시민 학생들이 奮然히 떨쳐 일어섰던 그날이 무릇 반세기 지난 우리 마고21동창친구들이 아니었던가!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정부차원에서 인정받은 셈이다. 마산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이레 동안 <삼월이 오면>공연이 열렸는데, 음악과 문화감상에 깊은 관심과 열정이 많은 조정웅 회장이 두 차례 엽서를 띄우고 독려전화를 하여 20일 토요일 오후7시 관람에 물경 23명의 동창들과 4명의 커플 팀이 참석하여 감상하였고, 총무는 사정상 그 다음날 가족과 함께 관람을 했다.

뮤지컬의 소재는 보리수다방 마담의 회상으로 시작되고 무대에 대형 천에 그린 무학산, 판자촌, 보리수다방, 창동건물, 북마산굴다리 등 그 당시의 풍경도 고스란히 옮겨놓았다. 슈샤인보이 청년들 그리고 민초들의 삶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渴望을 엿볼 수 있는 파노라마로 역동적이고 감동적이며 환상적인 무대였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삼월이 오면> 문화감상을 하지 않은 동창을 위해 월례회를 따로 판문각가든에서 중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 시간이 되기도 전에 벌써 두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식단을 음미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웰빙음식과 함께 걸판진 월례회가 되었지만 총무는 친구들의 걸치레의 인사와 歡心을 사기위해서도 아닌데 斗酒不辭하는 친구들의 시시껄렁한 이야기 흠쳐들을 겨를이 없었다.

조남규 동문께 감사합니다.
3.15아트센터에서 공연된
뮤지컬<봄이 오면>관람초대권
10매를 동창회에 전달하였습니다.

3.15 아트센터 참석자
곽영식 구해룡(2) 김기정 김기현 김기태
김석백 김선규 김태욱 김형철 배종길(2)
여경현 우용태(2) 이복열 이아인 이종량
장정치 전기용 정종필 조남규 조정웅 지해경(2) 황영일 황희생 이상27명

월례회 참석자
곽영식 구해룡 김기정 김기태 김기현 김방태 김석백 김성규 김순택 김정수 김채열
김한경 김형철 배복기 변민욱 변재국 변종일 여경현 오차근 이무일 이복열 이종섭
이종량 장영의 장정치 정정웅 조남규 이상27명

3월회보 회비완납자 김기정은 김기현으로 정정합니다.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0년 3월

수입			지출		
적요	금액	비고	적요	금액	비고
회비	250,000	이종섭 15만원	회보	200,000	인쇄(봉투포함)
		배복기 황영일 각5만원		53,680	발송(210매)
			기타발송	2,500	발송(우정의 넝쿨)
				31,500	수첩독촉장(126매)
협찬금	550,000	김기태 방학기 각20만원	월례회	335,000	판문각 가든
		권영집 10만원	유지컬	170,000	3.15 아트센터
		노광수 5만원	경조비	100,000	박필근 훈가
현물협찬		초대권10매(조남규)	가스충전	27,000	동창회사무실
모금함	28,000	동창회 사무실	관리비	83,000	동창회사무실
			수당	150,000	총무
수입계	828,000		지출계	1,152,680	
전기이월	3,782,510		차기이월	3,457,830	
합계	4,610,510		합계	4,610,510	



♣ 김기태 동문

지난 3월23일, 동문의 장남 경민 군의 마고동문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 김종화 동문

지난해 말부터 (사)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상임부회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02-703-9090

♣ 박광지 동문

동문의 아들 경민 군의 결혼식이 지난 4월3일, 서울 역삼동 메모리스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동문의 새 주소입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도화힐타운아파트 201-1401
02-408-8035, 011-210-8028

♣ 박영철 동문

동문의 주소입니다
마산시 오동동 149-28
카프리 양복점 010-7164-0663

♣ 이장우 동문

동문의 새주소입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259-4
대가비스빌 305호 (010-3465-0085)

♣ 최범기 동문

동문께서 지난 3월24일, 지병인 담도암으로 삼성병원에서 영면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0 재부동창회 신임회장단

회장	김수용	011-841-7836	051-746-7836	
총무	조영민	011-565-0004	051-753-7763	ymcho@daum.net
감사	정현경	016-546-7595	051-518-7595	jhk7595@hanmail.net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막바지 용심을 부리고 있는 3월 21일, 지난해 송년회를 가졌던 연산R 해암뷔페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먼저 윤성업 회장이 인사말을 통하여 “1년 전,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라는 취임의 변으로 시작된 한해의 출발에서 새로운 모임의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이곳저곳의 입맛을 찾아 모임 장소도 변경해 보고, 봄.

가을 나들이를 통하여는 이색 이벤트도 섞어가면서 인생 정리단계의 멋을 마음껏 누리 보고자 애썼지만 지나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했지만 동기회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쏟아준 친구들의 덕택으로 나름대로의 보람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진다고 했다.

이어서 총무의 한 해 동기회 살림에 대한 재무 보고와 함께 마산의 새 집행부 소식과 강신평 친구의 동래, 금정구교육위원 출마에 서울, 마산의 친구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했고 박진형 친구가 “재무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수입과 지출의 내용이 장부와 일치하며 적절한 운영이 되었다.” 고 감사 보고를 했다. 다음 순서는 임원선출의 안건으로 들어갔다. 윤성업 회장의 사회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의 회장 선출방식에 따라 이의승 친구가 물려받았으면 했지만 오늘이 정기총회인 만큼 새로운 제도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의견에 따라 박청길, 권기옥 친구의 추천 방식에 대한 이견 제시도 있었지만 결국 <지금까지 동기회장을 맡은 적이 없는 친구를 회의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추천하여 동기회의 활성화를 기하자는 토론 종결로 김수용, 박진형, 문호기, 박영섭 친구가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다수결에 따라 회의는 불참했지만 김수용 친구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누군가는 회장도 해보고, 총무도 해보야만 회원의 임무를 어떻게 해야겠는 지를 알 것이라는 중론이 지배적임을 간과할 수 없는 성숙된 총회토론이 되었다. 회원들의 전체의견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주일이 지난 29일 신임 회장단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힘든 협의 끝에 김수용 회장, 조영민 총무, 정현경 감사 체제로 새 집행부를 구성하여 인계인수를 끝냈다.

법정스님께서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즐거운 일도 영원하지 않다’ 고 하시면서 ‘모든 것이 한때이다. 좋은 일도 그렇다. 좋은 일이 늘 지속된다면 사람이 오만해 지기 쉬우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지면서 이전에는 무심히 관심 갖지 않던 인간관계도 더욱 알뜰살뜰 챙기면서 더 작은 것으로부터 새로운 기쁨을 찾아야한다’고 주신 말씀이 떠올려진다. 누군가 내가 필요할 때 선뜻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뒤돌아서도 언제나 여운이 남고 미소가 어리는 새 집행부와와의 새로운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엔 상처가 남지 않고 아름답기만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참석자

강신평 권기옥 김대균 김성광 김준태 김지남 김형래 김효석 남원일 박영섭 박진형 박청길 이강복 이의승 이장우 윤성업 정현경 조창제 천성태 최진화



3월 마지막 날, 쌀쌀한 날씨에 비까지 내려 노인네(?)들의 외출을 방해했나보다. 자주 모이던 용산역 앞 '용사의 집'이 교통이나 음식에 다소 문제가 있다하여 종로3가 한일장으로 장소를 바꾸기까지 했는데 참석자가 많지 않으니.....

집행부의 성의가 부족한 탓이라 자책하며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모습을 드러낸 친구들은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차니 반갑기 그지없다. 불고기에 해물탕, 소주 맥주 막걸릿잔이 이리 튀고 저리 날며 금세 왁자지껄해진다.

박광지(4월3일), 김종화(4월10일), 박박중(5월1일) 세 사람이 모두 아들들을 장가보낸다는 희소식에 우뢰 같은 박수, 특히 박박중은 러시아 사돈을 맞는 국제결혼이라니 박수 또 박수!

흥겨운 분위기속에 2009년도 결산보고서도 질의 없이 무사통과, 임원 개선도 두말할 사이도 없이 만장일치로 연임결정. 그래서 회장 성재삼, 총무 박박중, 감사 조용석이 1년 더 바가지를 쓰고 말았다.

지난번 모임에서 발의되었던 춘계야유회전은 집행부가 마련한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열띤 토의 끝에 4월 15일(목) 과천대공원에서 '산림욕장'과 공원투어를 택일하되 가족동반은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결론이 났다. 참가회비는 없고 푸짐한 선물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니 그날은 과천대공원이 마고인 가족들로 미어터지거나 앓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공식모임이 끝나고 주석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키다리 허 장군이 마이크를 잡더니 어느 날 등산길에서 <허광지>라는 새로운 이름의 동창생이 태어난 사연을 공개하여 참석자들을 배꼽 빠지게 웃겼고, 성이 바뀐 당사자는 인사불성도 아닌데 한마디 해명도 없었고 이고명이 선창하여 윗 층의 노래방에서 2차 모임을 벌인 악단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을 몰랐다.

참석자

김영웅 김종화 박광지 박금준 박박중 박용시 박진석 방학기 서종성 성재삼 송일성 이고명 이석우 이영우 임홍무 제정택 조용석 조재호 주영국 허양도 허호 이상21명


2010 재경동창회 신임회장단

회장	성재삼	010-4284-6604	junginad@unitel.co.kr
총무	박박중	011-9162-1756	
감사	조용석	017-277-8934	yaya255@hanmail.net

재경동창회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msh21>

조금 더 빠져나가면 능선길을 만나는 곳에 봉화산 27-26 표지판을 만나고 아래로 내리면 석전사거리까지 1km이고 위쪽으로 1.1km만 치고 오르면 봉화산이란 다. 다음기회에 봉화산도 한번 둘러보아야지 다짐을 해 놓고 오늘은 바로 내린다. 몇 발작 내리면 쉼터가 기다리고 조금 더 내리면 봉국사 옆 27-27 표지판의 끝을 알린다. 눈 아래에는 청산아파트가 코앞이고 50m정도 더 내리면 양조장이 있었던 석전 철도 다리 밑으로 빠지고 웰빙산책도 끝이 난다.

한편 오늘같이 화창한 일요일 그렇게 많고 많던 사람들 중에 내가 오지랴를 얼마나 좁은걸 걸치고 살았기에 아는 사람 한사람도 만날 수 없었나 생각하니 왠지 좁은 섭섭하대요..... *




祝結婚

김종화 동문 의 아들 기철 군
선영옥 여사

새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해 드립니다.

일시 : 4월 10일(토) 오후2시
장소 : 엠플러스 컨벤션 웨딩 4층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祝結婚

이무일 동문 의 삼녀 수진 양
이무자 여사

새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해 드립니다.

일시 : 4월 24일(토) 오후1시
장소 : 창원호텔 웨딩홀 2층



祝結婚

박박중 동문 의 아들 재성 군
심옥기 여사

새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해 드립니다.

일시 : 5월 1일(토) 오후1시
장소 : 엘웨딩홀 1층(02-472-7000)
서울, 강동구 성내2동 15번지
지하철5, 8호선 6번 출구

총동창회정기총회 안내

일시 : 2010. 4. 17(토) 오후3시
장소 : 모교강당

원고접수 E-mail : wing44@paran.com

제갈선광 포토갤러리 : http://wing91.tistory.com



무학산 ^{월빙} 산책로

(3)

장정치

동네 쪽으로 내려 무학농원 27-22 표지판을 만나면 봉화산까지는 아직 2.5km가 남았다고 알려 준다. 왼쪽으로 길을 따라 내려가면 바로 앵지밭골 위 27-23 표지판이 기다리고 넓은 터를 지나 내리면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숲길이 이어지고 잘 꾸며진 묘지가 차례로 반긴다. 앵지밭골의 깊은 골짜기를 파고들어 끝자락에 닿으면 쉼터가 있고 또 샘터 바로 아래 돌탑한가운데에는 유리문 안으로 향불이 타 오르고 있다. 포장길을 따라 조금 내리면 약수터 밑 교량 27-24 표지판이 있어 팻말을 따라 좌측으로 들어 조금 숨 가쁘게 오르면 만남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길에 뽕짜거리는 스텐으로 봉을 세우고 흰 바줄로 엮은 길이 산뜻한 느낌을 선사한다. 금세 달려 나가 시멘트 포장길을 만나 내리면 컴프레서 먼지떨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지를 털고는 그냥 생각 없이 내려가 버린다. 바로 내려가면 마여중 쪽으로 빠지는 길이지만 내려가지 말고 위쪽으로 10여m쯤 오르면 성진사 입구 27-25 표지판이 서 있고 봉화산까지는 1.0km 남았다는데 이제부터는 사람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아 나만의 한적함을 만끽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

밤밭고개에서부터는 드문드문 했던 사람들이 만날재부터 학봉까지의 구간에는 어른 아이 식구 모두가 나서서 길이 비좁더니 다시 서원곡부터는 드문드문 하드니 봉화산 쪽으로는 아예 한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한적한 길로 들어서면 아카시아나무가 터널을 이루었고 또 한쪽에는 작당을 했는지 키가 큰 몇 놈들이 작은 나무들만 보초를 세우고 드러누워 낮잠을 즐기고 있다.

길도 한적하고 저 아래 큰 뽕나무를 보니 아랫동네 젊은 과부를 따먹은 총각 이야기꺼리가 생각나지만 오늘은 그냥 입을 단자. 쓰다 보니 분량이 너무 많아 지루해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우니까……. 하지만 입을 단고 있자니 입이 간지러워 못 살겠고 하자니 너무 분량이 많고 참 난감한 판이 아닐 수 없다. 아이고 그래도 오늘은 좀 참자.

7쪽에 이어짐-

2010년 4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일시 : 21일(수) 오후 6시 장소 : 시골밥사(247-3118) 한국투자신탁 맞은편골목		부인회 일시 : 21일(수) 12시 30분 장소 : 녹차마을 삼성생명 앞
--	---	--